

'한국인의 얼 소나무와 황금 소나무'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5~30일 한국화 명인 채태병 화백 초대전 개최

한국화 명인 채태병 화백의 초대 개인전이 한국인의 얼 소나무와 황금 소나무를 주제로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생활문화센터가 지식정보와 문화 콘텐츠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서는 채태병 화백의 '세금 내는 소나무'와 '황금 천년송',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송' 등 소나무 그림 26점이 전시된다.

한국화에서 자주 보이는 소나무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이며 장수와 부귀를 의미한다.

채 화백은 척박한 땅에서도 굳건히 자라는



정부인송과 꽃사슴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인내력을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회와 관련한 사항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063-571-517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채태병 화백은 문화체육관광부 초대 개인전, 한가람 갤러리 초대 개인전, 한·일 국제 서화 교류전 등 100여 회의 국내외 전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한국화 명인을 인증받았으며, 현재 (사)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전국지회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희망 동행전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군산 발달장애인·청년 예술가 함께 날다! '도아, 그리고' 공연

6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서 진행

발달장애 화가 김정훈씨와 군산시 발달장애인들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날아오르는 '도아, 그리고' 공연이 오는 6일 수요일 오후 6시 군산시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2022년 청년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 예술가들이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도아(圖兒)' 김정훈 화가의 작품과 발달장애인들과의 콜라보 무대다. 이정섭 아나운서의 김정훈씨가 소개를 시작으로 작품 6점을 백스핀 무대로 전시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작품 사이사이에는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뮤지컬반(강동현, 김성규, 박초롱, 박희선, 이동

구, 전정남, 채호성)의 사운드오브 뮤직 OST 중 '도레미 송' 뮤지컬 공연과 자문 주간활동센터 난타반(한승준, 이지현, 이현주, 김미경, 고진경, 백민, 손지우, 한재민, 김선우)의 한잔해, 쿵따리 사비라 난타 퍼포먼스가 흥겹게 이어질 예정이다.

또 Benny Goodman/Sing Sing, Sing(전하리, 김은하) 피아노 연주, 바람의 빛깔 별들도 꽃처럼(노래:성유하/피아노:윤미경), Trois Romanes sans paroles/satie(첼로:백운정/피아노:윤미경) 공연으로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군산=김광민 기자

전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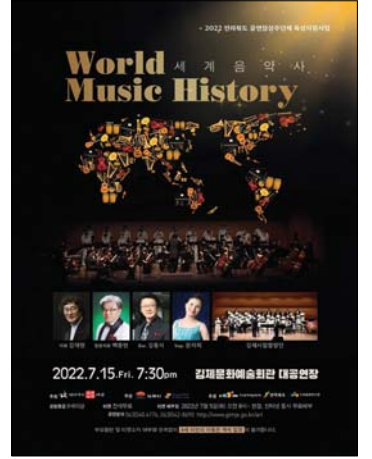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15일 드림필 '세계 음악사'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2022년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사)드림필의 '세계 음악사' 공연이 개최된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라북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파와 낭만파 시대에 이르는 작곡가들의 연주곡에 개사한 가사를 붙여 드림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와 김제시합창단, 바리톤 김동식, 소프라노 문자희가 함께 협연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세계 음악사를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고전파)의 심포니 82번 일명 '꿈'을 시작으로 '오케스트라와 합창으로 배우는 음악사',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성악가들의 '세계 민요 메들리' 등 귀에 익숙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세계 음악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둔 가족 관람객들의 예매 문의가 잇따라 그 기대가 크다.

한편 2022년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드림필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11월까지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관람권 예매는 7월 5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mrj.gov.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배부하며 전석 무료이다.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생생 집강소' 협력 워크숍 개최

전주문화재단, 생활문화협력주체 5곳 참석 활동 점검·의견 교류

전주문화재단(대표 백옥선)은 전주시 생활문화센터협회(협회장 고미숙)와 공동으로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생생 집강소' 협력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생 집강소'는 지난 3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출범한 생활문화 네트워크, 기후후기를 주제로 전주시 전역에서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은 전재단을 비롯해 생활문화협력주체 5곳이 참석해 '생생 집강소' 활동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마을 살아,

문화자치, 협업, 협력, 성장 등을 중요 가치로 뽑았다. 또한 오는 10월 진행될 생생 축제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퍼포먼스, 상징물 제작, 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연출 기획하기로 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이 권역 간 상호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지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주형 생활문화 협력 네트워크 '생생집강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권역별 생활문화센터(인후, 우아, 진북, 삼천)나 전주시민놀이터로 문의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찾아가는 미술관: 임실, 아주 사적인 표면들'展

임실문화원서 8월 31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전시

임실문화원(원장 김태진)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임실, 아주 사적인 표면들'展을 개최한다.

'찾아가는 미술관'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도내 시·군 문화공간을 찾아가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민의 공공문화 자선인 미술관 소장품의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미술 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아주 사적인 표면들'展은 도립미술관 개관 이래 수집해 온 다양한 소장품 중 고전적인 매

체 분류법으로는 한국화 및 서양화에 속하는 동시대 회화 작품 등 11점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질료와 작가의 필치로부터 비롯된 표면의 물질성'을 주제 삼아 작가의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그로부터 비롯된 회화성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관람문의는 임실문화원(063-642-2211)으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 제80회 정기공연 개최

남원시립합창단은 오는 2일 오후 5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80회 정기공연을 펼친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남원시립합창단(지휘자 최관)의 이번 공연은 일상회복을 일리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40명의 단원이 하나 되는 목소리로 시민을 찾아간다.

특히,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이하는 남원시립합창단은 국내 최정상급의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와 협연을 비롯한 다채롭고 풍성한 레퍼토리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별도의 사전예매 없이 전석 무료(40분전부터 입장가능)이며, 공연관련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청 문화예술과(063-620-6154)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성경 66권, 천국 비밀과 새 언약 계시 증거

"세계 목회자·신앙인·언론인들에게 공개하는 계시록의 비밀"

2022. 7. 4 (월) 오전 10시
강의자: 신천지 총회장

신천지 공식 유튜브 전 세계 동시 송출

YouTube [천국 비밀과 새 언약 계시 증거](#)